

조선업 특수 기대, 車·반도체 가격 압박… ‘업종별 희비’

조선업, 대규모 투자로 새 기회 모색
車, 15% 관세 부담에 수익성 우려
반도체, 가격 인하로 경쟁심화 전망
철강·제약·에너지 영향 제한적 예상

한국과 미국의 상호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국내 산업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향후 타격이 예상되는 반면 조선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철강과 제약 등 대부분 업종은 당장에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한미 무역협약의 ▲15% 관세율 ▲대미 투자 3500억달러 ▲미국산 에너지 구매 1000억달러 ▲시장 완전 개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품목별 관세와 투자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 발표와 유사하다며, 자동차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반도체와 제약은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업종에는 부정적 요인이 크다. 자동차의 경우 관세 인하에도 수



자성대부두에서 출항을 위해 바지선에 선적된 모습.

/부산항만공사

익성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일본계 7개 브랜드의 판매량은 588만대(점유율 37.1%)를 기록했으며 독일 3사를 포함 유럽계 브랜드는 162만대(10.3%)를 판매했다. 현대차·기아는 170만대를 판매했으며 점유율 10.8%를 기록했다.

이번 관세율 하향 조치는 현대차·기아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기아가 지난 4월부터 25%의 자동차 관세로 2분기

영업이익에서 총 1조 614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현대차·기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8%, 24.1% 감소했다.

다만 12.5% 관세를 확정한 일본과 EU 자동차와 경쟁해야한다는 점에서 수익적인 면에서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현대차증권은 이날 ‘트럼프 관세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은 각각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이번 15% 결정은 2.5% 포

인트의 역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결과”라며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7~8% 수준인데, 15%의 관세는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종은 15% 관세 부과 시 수출가격 인하가 불가피해 미국향 제품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가격 저항을 줄이기 위한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업종은 조선

이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상 합의안에 따르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특화 펀드로 선박 설계· 건조, 기자재, MRO(유지, 보수, 정비) 등 조선의 전 생태계를 현지에 구축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국내 조선사와 전후방 관계업체들은 미국향 새로운 특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을 뚫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철강, 제약, 에너지 등은 중립적 영향이 예상됐다. 철강은 기존 50% 관세가 유지돼 변동이 없고, 제약은 관세 영향으로 수익 악화 가능성이 있으나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다. 에너지는 미국산 LNG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기존의 중동산 도입분을 대체하는 수준이어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물류비용이 추가될 수 있지만 미국산 LNG의 상대적 낮은 가격에 상계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건설, 화장품 등은 관세 합의로 불확실성이 완화돼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흐름이 기대된다고 현대차증권은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산업계, 수출환경 개선 기대… 철강업계는 추가 협상 필요성 강조

반도체, 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철강, 시장 상황 분석 후 전략 수립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산업계 전반에는 우선 불투명성이 해소된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 인하로 향후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기존 2.5% 관세에서 12.5%를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업계는 미국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조정된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이

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한-미 관세 협상과정에서 지난 4월부터 적용돼 온 25% 고율의 자동차 관세가 일본, EU 등 경쟁국가와 동등한 15%로 감소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 자동차시장은 우리나라 수출물량 278만대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시장으로 우리나라가 일본, EU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며,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없어진데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품목 관세가 이르면 시일 내에 수출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자동차업계가 국내생산기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등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대차그룹은 “대미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해주시는 정

부 각 부처 및 국회의 헌신적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대차·기아는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만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애초 차 관세를 12.5%로 요구한만큼 이번 결과가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한국은 FTA를 통해 미국 자동차 관세율이 제로였다”며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산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음 달 중 품목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반도체 업계는 협상 타결을 반기는 한편, 추후 관세 부과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업계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인 품목별 관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최혜국 대우를 해주기로 약속했으니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자업계는 “한미 양국 간 협상 타결을 통해 불확실성이 감소됐다”며 “이번에 발표된 합의 내용의 세부 사항들에 대한 양국 간 추가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선업계도 미국과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협력펀드로 선박건조와 MRO 조선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자국 내 선박 건조만 고수했던 보수적인 미국 시장을 개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신규 시장 진출을 미국은 조선업 재부흥을 얻을 수 있어 양국에 공

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세계 최고 설계·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조선 기업과 소프트웨어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이 협력을 통해 향후 자율운행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다만 이미 50%의 품목 관세를 받는 철강업계는 상호 관세 협상 타결과 별개로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철강 업계는 “일본이나 유럽연합(EU)도 똑같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결국 국가별로 철강 품목과 관련한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미국 시장에서의 고전이 예상돼 향후 미국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품목별 수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이승용·차현정 기자 ysw@

코스피, ‘관세 타결’ 이후 실적·내수 회복이 변수

관세 타결 호재에도 1% 하락
JP모건 “코스피 5000 가능” 전망
전문가들 “실물 흐름이 관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31일 코스피는 0.28% 하락한 3245.44에 마감했다. 8000억원 가량의 기관차익 매물이 쏟아진 영향이다. 개인과 외국인도 각각 3600억원, 3400억원어치 주식을 샀다.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포스트 ‘한-미 상호관세 협상 타결’로 이동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나 비효과를 불러온다면 코스피가 5000시대가 꿈만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앞으로 2년 내 코스피 지수가 50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근거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하나로 지목했다. JP모건은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한 시장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추가 매수를 권한다”면서 “관세 우려, 성장 둔화, 채권시장 변동 등 글로벌·지역 증시 변동은 빠르게 매수세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했다.

과제도 있다. 기업과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실적 제자리 찾기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기업이익이 제

자리인데 주가만 오르길 기대하는 건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시장 자체가 매력 있어야 기업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자금도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기적으로 수출흐름과 경제지표에 따라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앞서 상호관세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며 “불확실성

이 해소된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에서 하반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비롯한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 기업들의 실적 흐름 등을 종합해서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의 한 축인 내수도 온기가 돌아야 한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결과, 주요 기업 4곳 중 1곳(25.7%)은 올해 하반기 최대 경영 위협으로 ‘내수부진·경기침체’를 꼽았다.

/신하은 기자 godhe@